

국내의 주요 뉴스 및 코멘트**SIN: 신조선가치수 154p, 중고선가치수 183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치수는 154p(+0p, WoW), 중고선가치수는 183p(+0p, WoW)를 기록함. 2020년에는 1,032척이 발주된 반면 2021년 12월 셋째주 기준 1,621척이 발주됨. (Clarksons)

한은, 대우조선해양 새 인수자 물색?

유럽연합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최종 불허할 경우 산업은행은 바로 새 인수자 찾기에 착수한다는 전망이다. 인수 후보로는 포스코, 한화, 효성 등 철강업체와 방산업체들이 거론되고 있음. (선박뉴스)

Tanker newbuilding market sees second barren month in 2021, Affinity says

2021년 8월, 11월에는 탱커가 1척도 발주되지 않으며 신조선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면 준비에 들어감. 컨테이너선 발주는 10-11월 저조했고, 벌크선도 운임시장 변동성으로 발주가 감소함. (Tradewinds)

Bleak for VLCCs in 2022, while 'avalanche' of newbuilds threatens suezmaxes

VLCC는 2021년 30년래 가장 저조한 해를 보냈지만 2022년에도 고전할 것으로 보도됨. 2020~2022년 중 선대 규모는 +9.4%가 증가하며 공급 압박이 커질 것. 예상 해체 척 수는 13척임. 2022년 예상 선대증가율은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인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Tradewinds)

International Seaways sees product tanker recovery continuing well into 2022

정유 수요 증가에 따라 석유제품운반선(PC)운임의 상승세가 향후 몇 분기 동안 이어질 것임. MR 탱커 해체량도 늘어나며 2022년에는 원유운반선 시장보다 회복이 빠를 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

바이든표 1.7조달러 사회인프라 법안 연내통과 결국 무산 위기

민주당 중도파 맨친 의원이 강력 반대의사를 천명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1조7,500억달러규모 인프라투자법안이 무산 위기에 처함. 맨친 의원 반대 시 상원통과가 불가해짐. (아시아경제)